

2008년 상반기 국내 주류시장동향

김태호 과장 기획조사팀

I. 국내 주류시장 동향

2008년 상반기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4.3%나 상승했으며, 장기간 지속된 가계의 소비여력 약화와 고용불안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던 시기였다.

※ 소비자물가동향(전년동월대비, %) : 1월(3.9), 2월(3.6), 3월(3.9), 4월(4.1), 5월(4.9), 6월(5.5)

상반기 주류소비패턴은 전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경기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소주와 맥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가주류인 위스키를 비롯한 타 주종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상반기 전체 주류출고 수량은 2분기 수량(전년동기대비 약 5.5%)이 증가한데 힘입어 3.6%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주류를 크게 증류주와 발효주로 나누어 상반기 점유율을 살펴보면 증류주가 약 43%, 발효주가 약 57%를 차지하고 있어 맥주, 과실주, 약주, 청주 등 발효주를 많이 소비함을 알 수 있다.

상반기 주류 출고 현황

단위 : kl, %

구 분		1분기	2분기	2008년 상반기		
				누 계	전년대비	점유비
합 계		724,235	866,407	1,590,642	103.64	100.00
증 류 주	희 석 식 소 주	311,475	353,578	665,053	104.45	41.81
	증 류 식 소 주	63	27	90	63.38	0.01
	일 반 증 류 주	2,128	3,860	5,988	91.31	0.38
	리 큐 르	609	523	1,132	70.22	0.07
	위 스 키	2,187	2,236	4,423	77.69	0.28
	브 랜 디	5	103	108	96.43	0.01
발 효 주	맥 주	391,820	494,195	886,015	103.70	55.70
	청 주	6,496	3,884	10,380	92.99	0.65
	과 실 주	5,158	4,192	9,350	98.23	0.59
	약 주	3,606	3,081	6,687	90.87	0.42
기 타 주 류		688	728	1,416	94.09	0.09

※ 자료 : 대한주류공업협회(비회원사 제외)

증류주 중 상반기 희석식소주는 활발한 제품출시와 마케팅활동 강화, 경기위축에 따른 소비형태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5% 증가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증류식소주는 '담금세상' 제품 실적이 저조해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이를 제외한 증류식소주는 약 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증류주 중 리큐르는 매실주 제품이 제조방법에 따라 과실주로 변경된 것과 지난해 상반기까지 리큐르로 출고되던 '담금세상'이 7월 이후 일반증류주로 변경 출시되어 이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위스키는 국내제조보다 완제품 수입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

발효주의 경우는 상반기 맑은 날씨와 일찍 찾아든 여름날씨로 맥주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7% 증가하였으나, 과실주, 약주, 청주 등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미미한 감소를 보였다.

과실주는 복분자주, 매실주 등 1분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종이며, 지난해와 비슷한 출고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도 좋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약주와 청주의 경우는 전년과 비교해 약 8%가 줄었으며, 매년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대중들이 즐겨 음용하는 주류로는 소주와 맥주를 들 수 있으며, 전체주류시장에서 각각 42%와 5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상반기 두 주종이 전체시장의 증가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비교적 소비자가격이 낮은 대중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경기와 가계소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 소비행태는 음주횟수의 축소보다 고가주류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주류 출고 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1분기	2분기	2008년 상반기		
				누 계	전년대비	점유비
합 계		1,631,182	1,912,698	3,543,880	104.04	100.00
증 류 주	희 석 식 소 주	698,902	789,238	1,488,140	109.39	41.99
	증 류 식 소 주	1,038	262	1,300	116.18	0.04
	일 반 증 류 주	4,465	8,554	13,019	97.61	0.37
	리 큐 르	3,143	2,147	5,290	58.22	0.15
	위 스 키	89,609	97,727	187,336	72.47	5.29
	브 랜 디	195	3,722	3,917	99.67	0.11
발 효 주	맥 주	745,404	947,657	1,693,061	105.53	47.77
	청 주	28,814	15,186	45,000	93.45	1.27
	과 실 주	36,027	27,001	63,028	106.42	1.78
	약 주	21,521	18,015	39,536	90.02	1.12
기 타 주 류		2,064	2,189	4,253	98.82	0.12

※ 자료 : 대한주류공업협회(비회원사 제외)

상반기 주세면세주류(군납과세분 포함) 출고는 90,025kℓ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5%가 증가했으며, 소주도 4.7% 증가, 맥주의 경우도 면세주류 중 수출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무려 2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주류 출고금액은 전체 3조 5,439억원이며, 그 중 맥주가 47.8%, 소주 42.0%, 위스키 5.3%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출고되고 있다.

본회가 집계하는 국내제조 위스키는 전체주류시장에서 수량으로 약 0.3%에 불과하지만, 금액기준일 경우는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출고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증류식소주의 경우는 '담금세상' 실적이 저조했지만, 가격이 저렴하여 증감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일품진로'의 증가로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다만, 증가된 수량은 '07년 상반기 27kℓ에서 '08년 36kℓ로 적은 수량이다.

상반기 주류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불, %

구 분	1분기	2분기	2008년 상반기		
			누 계	전년대비	점유비
합 계	132,580	137,329	269,909	119.55	100.00
위스키	58,978	73,566	142,544	114.54	52.81
포도주(원액포함)	46,495	43,920	90,415	129.61	33.50
맥주	8,257	10,808	19,065	143.82	7.06
기타리큐르(오가피 등)	2,438	2,854	5,292	139.04	1.96
꼬냑	1,977	1,945	3,922	58.52	1.45
청주	1,317	1,304	2,621	172.78	0.97
데킬라	647	559	1,206	105.88	0.45
기타포도주	731	467	1,198	86.56	0.44
보드카	464	684	1,148	155.56	0.43
기타증류주	393	556	949	170.07	0.35
럼	295	285	580	173.13	0.21
소주	278	105	383	44.53	0.14
과실발효주(사과술 등)	125	152	277	80.76	0.10
진	68	76	144	89.44	0.05
브랜드	93	2	95	14.24	0.04
포도주(유사포도주)	20	19	39	66.10	0.01
기타곡물발효주	1	17	18	900.00	0.01
기타발효주(와일콜러 등)	3	10	13	40.63	0.00

※ 자료 : 관세청(www.customs.go.kr)

리큐르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담금세상’의 공백보다 가격이 높은 일부 매실주제품의 이탈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약 58%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과실주는 출고금액으로 약 6.4% 증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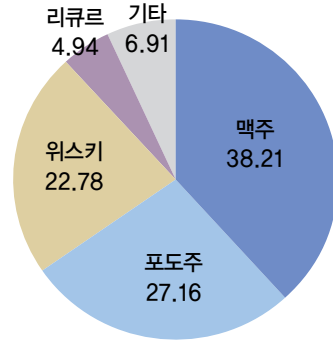
우리나라 상반기 주류수입은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대폭 늘어나 금액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하였다.

수입되는 주류 중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주류로는 맥주, 포도주, 위스키, 리큐르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밖에도 청주, 보드카, 럼 등 수량은 적지만, 다양한 주종에서 빠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주류의 경우는 대부분 소비자 기호에 따라 선택되

어지기 때문에 가격의 높고 낮음보다 유명상품 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수입량은 비슷하나 수입금액이 높아지는 포도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상반기 수입주류별 점유율(%)



※ 자료 : 관세청(www.customs.go.kr), 중량기준

수입금액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주류는 위스키로써 전체의 약 53%를 점유하고 있으며, 원액을 포함한 포도주가 약 34%로 두 번째를 나타내고 있다.

맥주는 중량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나, 금액으로는 약 7% 정도를 점유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수입주류를 중량기준으로 주요품목의 점유를 조사해 본 결과 맥주(38.2%), 포도주(27.2%), 위스키(22.8%) 등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약88%를 상회하고 있었다.

II. 주요 주종별 동향

2008년 상반기 희석식소주는 내수와 수출의 고른 판매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약 4.5% 정도 증가했으며, 진로와 두산의 출고량 증감이 소주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2분기 국내 소주시장은 여름을 겨냥한 신제품 출시, 해양심층수소주 출시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출고 및 판매가 활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일명 ‘소맥’의 지속적인 유행도 한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업체별로는 진로가 전체의 약 50.9%인 338,745kℓ를 출고했으며, 두산이 13.2%, 금복주 8.5%, 대선주조 7.5%, 무학 7.4% 등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희석식 소주 업체별 출고현황

단위 : kl, %

구 분	1분기	2분기	2008년 상반기		
			누 계	전년대비	점유비
합 계	311,475	353,578	665,053	104.45	100.00
진 로	160,381	178,364	338,745	108.44	50.94
두 산	38,549	49,001	87,550	104.74	13.16
금 복 주	27,494	29,092	56,586	99.77	8.51
대 선 주 조	24,081	25,664	49,745	100.51	7.48
무 학	24,151	25,238	49,389	100.20	7.43
보 해 양 조	15,941	21,521	37,462	92.16	5.63
선 양	9,956	10,833	20,789	103.05	3.13
하 이 트 주 조	3,845	5,144	8,989	95.61	1.35
총 복 소 주	3,227	4,859	8,086	106.82	1.22
한 라 산	3,850	3,862	7,712	103.42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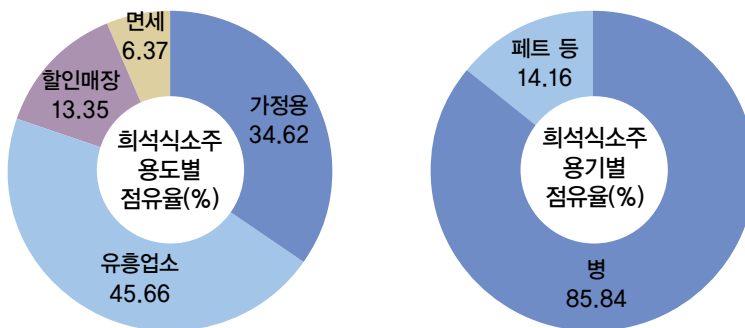
※ 자료 : 대한주류공업협회(비회원사 제외)

지난해 상반기 소주시장에서 약 49%를 차지하던 진로가 올해 같은 기간 약 51%를 보이며, 다시 50%대를 회복했고 두산과 금복주, 대선주조 등 나머지 소주업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 또는 소폭 하락을 보이고 있다

소주를 용도별로 살펴보면 전체의 약 48%(할인매장용 포함)가 가정과 야외 등 가족과 함께 음용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으며, 약 46%는 식당 등 유흥업소용으로 출고되고 있다.

소주의 주세면세용은 수출, 군납, 외항선(항공 포함), 관광공사 등으로써 이 중 수출이 약 9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납이 약 8%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희석식 소주 용도 및 용기별 점유율



※ 자료 : 대한주류공업협회(비회원사 제외)

용기별로 살펴보면 시기에 따라 페트 점유율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5월~7월, 9월~10월경 매실, 복분자, 머루, 포도 등의 수확시기에 맞춰 담금주를 제작하기 위해 대용량 페트 소주가 많이 판매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분기 1ℓ 이상 페트소주 출고는 1분기 출고수량 대비 약 61% 증가

2008년 상반기 우리나라는 평년기온보다 웃돌았으며, 4월부터 찾아든 때 이른 초여름 날씨로 맥주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년 동기 대비 약 3.7% 증가한 886,015kℓ를 출고했다.

상반기 업체별 맥주출고는 하이트맥주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증가하고, 오비맥주가 약 5.7% 정도 크게 성장했으며,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하이트맥주 59%, 오비맥주 41% 로 지난 1분기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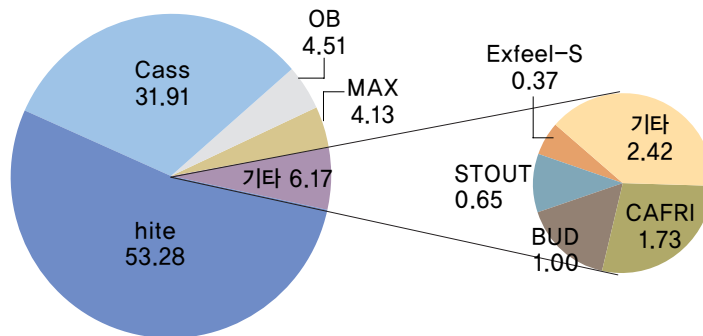
상반기 맥주 업체별 출고현황

단위 : kℓ, %

구 분	1분기	2분기	2008년 상반기		
			누 계	전년대비	점유비
합 계	391,820	494,195	886,015	103.70	100.00
하 이 트 맥 주	230,966	289,062	520,028	102.34	58.69
오 비 맥 주	160,854	205,133	365,987	105.69	41.31

※ 자료 : 대한주류공업협회(비회원사 제외)

상반기 맥주 제품별 점유율(%)



※ 자료 : 대한주류공업협회(비회원사 제외)
hite(피쳐 및 생 포함), Cass(시리즈 전체 등 큐팩, 생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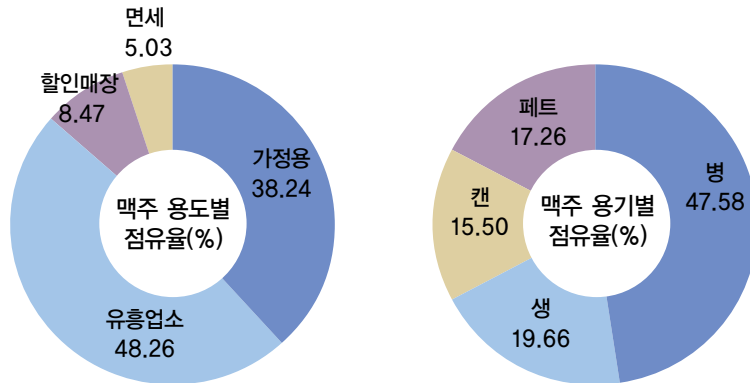
국산맥주는 하이트맥주에서 'hite', 'Max', 'Exfeel', 'Stout' 등이, 오비맥주에서 'OB', 'Cass', 'Cafri', 'Budweiser'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hite'가 전체의 5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출고되고 있고 뒤를 이어 'Cass'가 약 32%, 'OB' 약 5%, 'Max' 약 4% 등 총4개 제품이 우리나라 전체 맥주를 대표하고 있다.

하이트맥주 주력제품인 'hite' 제품 출고는 자사의 여러 제품 중 약 91%를 점유하고 있으며, 오비맥주의 'Cass'는 자사에서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상반기 유통업소로 출고된 맥주는 전체의 약 48%, 야외 또는 가정에서 음용하기 위해 출고된 맥주는 약 47%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면세용 맥주 중 수출이 전체의 약 70%, 군납이 약 27%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9%나 증가했다.

맥주 상반기 용도 및 용기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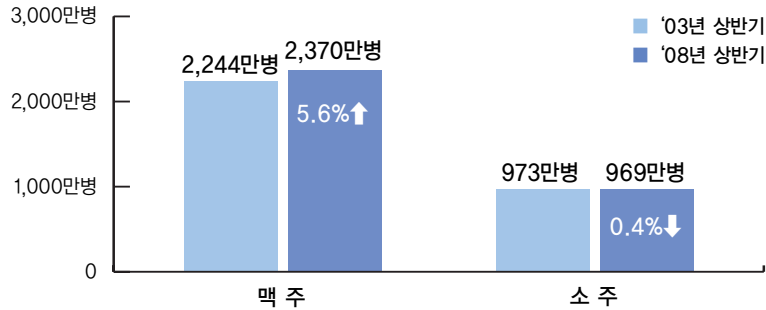
※ 자료 : 대한주류공업협회(비회원사 제외)

상반기 군납용으로 맥주가 2천370만병(500ml 기준), 소주는 969만병(360ml 기준)으로 맥주가 약1.5배 많이 납품되고 있으며, 5년전인 2003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소주는 미량 감소한데 반해 맥주는 약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별로 맥주 출고 점유는 병맥주(48%), 생(20%), 페트(17%), 캔(15%)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병과 페트 용기 외에는 매 분기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출맥주는 국산브랜드와 OEM브랜드로 나뉘며, 수출량 중 약56%로 구성된 OEM브랜드는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

상반기 군납용 출고 현황



Ⅲ. 향후 전망

2008년 상반기 국내주류시장은 경기상황 및 가계 소비여건 하락과 일찍 찾아든 초여름 날씨 등의 외적요인과 여름을 겨냥한 신제품, 해양심층수 소주 출시, 온·오프라인 CF 홍보, 젊은 층 대상의 다양한 이벤트, 업체 및 고객관리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내적요인이 잘 융화되어 전년보다 활발한 시장을 형성했다. 주류업계의 이 같은 노력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더욱 강화될 것이며, 특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은 맥주시장이겠다.

하반기 맥주업계는 베이징 올림픽 특수를 시작으로 자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층을 겨냥한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9월까지 이어지는 무더위로 맥주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맥주업계는 밝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주업계도 물론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음식점에 '보냉팩' 공급, 온라인과 지하철을 이용한 CF 홍보, 기업 이미지광고 등 소주 비수기 탈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신제품 출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실주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예외는 아닐 것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복분자주가 과실주를 주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복분자주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50%가 늘어난 1,500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으며, 보해양조를 시작으로 두산, 진로 등도 뛰어 들고 있어 시장확대는 물론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것이다. 국순당도 전통주를 복원하는 한편 여름용으로 열린 생백세주를 판매하는 등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국내 주류제조업체는 국내시장에 머물지 않고 해외법인 설립, 해외 주류박람회 참가, 해외 주류전람회에 참가해 수상하는 등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하반기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가계 소비여건 등이 개선되리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위에 언급한 주류 업계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8월 세계적인 이벤트인 베이징올림픽이 개최되어 주류소비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찍 시작된 무더위가 9월말까지 이어지는 등 주류 판매에 많은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 정확한 집계는 어려우나, 3분기 주류출고를 미루어 짐작컨대 전년 동기 대비 약 5%대 성장은 무난하리라 판단되며, 1분기와 3분기 누계로는 약 4%대 증가가 예상된다.

